

경농, 신제품 「제로인」 「늘사랑」 출시

(주)경농 (대표이사 이병만)이 신제품 2종을 잇달아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토양·생물에 안전하고 잡초방제효과가 보다 높아진 새로운 개념의 비선택성제초제 「제로인」과 역병·노균병 전문약으로 출시되어 특히 채소류 재배농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는 「늘사랑」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에 출시된 「제로인 액제」는 토양·생물에 안전한 친환경적 제품이며 속효성 제초제다. 토양 박테리아 추출물 성분이 합성된 약제로 사용 후 미생물에 의해 탄산가스, 물, 인산 등으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지렁이 및 각종 미생물에 안전하며 토양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과수원, 비농경지, 논둑, 밭 등에 발생한 다양한 잡초들을 확실하게 방제하며, 특히 약제처리 후 2~5일이면 약효가 나타나는 속효성 제품이다. 난방제 잡초인 쇠뜨기, 쑥, 닭의장풀 등과 저항성 망초에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데 잡초의 크기가 20~30cm일 때 가장 효과가 좋다.

또 「늘사랑 분산성액제」는 예방 및 치료효과가 우수하여 살균범위가 넓고, 교차저항성이 적어 내성이 생긴 노균병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또 잔효력이 길고 내우성이 우수하여 저농도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동부하이텍·동부정밀, 임금 및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



(주)동부하이텍과 동부정밀화학(주) 노사가 4년 연속 임금 및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을 이뤄냈다.

동부하이텍 차동천 대표, 동부정밀화학 전대진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과 노사 대표는 지난 5월 26일 서울 본사에서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 선포식'을 갖고 "노사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교섭 타결에 뜻을 같이함으로써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정착하게 됐다"고 선언했다.

선언문 발표 후 노조위원장들은 "그동안 기꺼운 선진노사문화를 토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더 밝은 미래를 함께 건설하자"며 "회사도 우수인재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동부하이텍, 새로운 계통의 진딧물약 「세티스」 눈길

최근 15년간 니코틴계 외의 제품이 개발되지 않아 진딧물 방제가 어렵고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계통의 제품이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동부하이텍(대표 차동천)의 「세티스」는 기존의 니코틴계통과 전혀 새로운 계통의 신물질로서, 저항성이 생겨 약효가 짧아진 포장의 진딧물방제에

동부하이텍, 찾아가는 영농서비스 활동 펼쳐

동부 하이텍(대표 차동천) 중부지역본부는 지난 5월 고양시 송포농협과 연계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대농민 영농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영농판촉행사에서는 작물보호제, 비료, 친환경농자재의 실사용 시기에 맞추어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방법과 최근 문제시 되는 논잡초 발생상황에 맞는 잡초방제요령, 병해충방제기술에 대한 영농상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친환경농자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영농컨설팅은 농협관계자 및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송포농협 박찬민 상무는 “동부하이텍의 병해충방제에 대한 우수한 제품 기술력과 송포농협



조합원인 실사용 고객과의 접근 관리능력을 효율화시켜 실시된 이번 판촉행사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 뜻 깊은 행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영농상담을 받은 농민들은 “최근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져 약제선택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오늘 영농상담을 통한 일대일 맞춤형 영농컨설팅을 받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한 달 이상의 긴 잔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꿀벌 및 무당벌레 등 유익한 곤충에는 안전하여 일반 진딧물 발생포장은 물론 개화기의 과수 및 수정벌을 사용하는 시설하우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바이엘CS, 「German World 2008」 참여



한국내 대표적인 독일 기업으로 자리 잡은 바이

엘 크롭사이언스(대표이사 요그 레바인)가 참여하는 「독일 첨단기술 · 라이프스타일 · 과학전 (German World 2008)」이 많은 독일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인도양홀에서 열려 최첨단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한국에 대한 독일의 기술 및 자본 투자현황, 향후 개발계획은 물론 각종 첨단기술로 제조,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한 자리에서 편안히 볼 수 있는 금번전시회는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가 독일 기업과 문화를 홍보하고자 주최한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외국기업 취업정보를 비롯, 즉석 행운권 추첨, 차범근 감독 사인회(5월 31일), 무료 혈당 측정(매일 2회 씩) 등 다양한 고객 사은행사도 가졌다.

바이엘, '브랜드퓨전'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

고 객들에게 더욱 경제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대표이사 요그 레바인)가 선도적인 움직임 중 하나인 '브랜드퓨전'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다.

바이엘이 펼치고 있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움직임 중 하나이며 모든 광고와 마케팅 도구들을 하나의 단일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통합함으로써 시장에서 바이엘의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브랜드퓨전'은 고객들에게 간단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바이엘의 '글로벌 브랜딩 강화 프로젝트'이다.

특히 '무엇이 가장 중요한 브랜딩 요소이며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어떻게 하면 이들 중요 요소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바이엘은 △바이엘 크로스 마

크 △제품 브랜드 △포장 디자인 등 타사에 비해 월등히 강력한 세 가지의 중요한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바이엘의 '크로스 마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기업 브랜드 중의 하나이며, 혁신성과 품질의 대명사로 기억된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바이엘 '제품 브랜드' 들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구매의사 결정에 큰 영

향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엘 제품의 독특한 V자 방패형 '포장 디자인' 또한 많은 고객들에 의해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성보화학, 「개발마케팅부」로 부서명 변경

성보화학(주)(대표이사 박종영)가 5월 1일부로 지난 20여 년간 사용해 온 부서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성보화학은 그동안 개발 보급업무를 기술개발부 및 기술보급부로 각각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고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08년 1월부터 2개의 부서를 통합, 개발보급부로 운영해 오다 이번에 '개발마케팅부'로 부서명을 변경한 것이다.

성보화학측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신규제품이 마케팅과 연결되어 판매촉진을 이루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고객인 농업인들의 요구와 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젠타, 「에이팜&아타라」로 '토마토 반점위조바이러스' 예방

신젠타 코리아(주)(대표이사 김용환)가 최근 고추, 토마토 작물을 포함한 많은 작물에 발병이 늘고 있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의 예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신젠타는 이 바이러스가 총채벌레를 매개로 전염, 확산되는 병으로 토양에 잔존하는 총채벌레 유충, 약충의 밀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제 포인트라고 보고 방제약인 '에이팜'과 '아타라'를 추천한 것이다.

한국삼공, 신제품 「애니충」 「명작」 출시

한국삼공 주식회사(대표이사 회장 한광호)가 창사 40주년을 기념하며 나방전문약 「애니충」과 역병·노균병 전문약 「명작」을 출시하였다.

세계 최초의 해충 근육수축제인 「애니충 액상수화제」는 나방전문 살충제로 나방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독특한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비목 유충이 살포된 작물을 조금만 가해해도 섭식을 중단하므로 가해 흔적이 적어 보다 깨끗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꼬리가 달린 유주자가 물속에서 스스로 이동하여 병을 일으키는 역병·노균병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된 「명작 액상수화제」는 설폰아마이드계통으로서 효과가 오래가는 새로운 역병·노균병 전문약이다.

예방 효과는 물론 이미 발병된 작물로부터 주면 작물로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확산저지 효과가 우수하다. 특히 내우성이 뛰어나 장마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무료상담전화 : 080-023-0031).

아타라입제는 토양 처리 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약제이며 기본적으로 총채벌레 발생이 많은 포장에 작물의 곁에 수분을 많이 처리한 상태에서 아타라입제 또는 테라피를 뿌리면 토양 내 약충 방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테라피 입제를 총채벌레 발생이 예상되는 포장에 정식 전 살포하면, 총채벌레 밀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작물의 지상부를 가해하는 약충, 유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아타라입상수화제 또는 에이팜유제의 엽면살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문의 02-398-5617).

고려바이오, 공장 확장 준공식 가져

생물농약 및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생산하는 고려바이오(주)(대표이사 김영권)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소재 본사내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 학계, 언론 및 업체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확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생산체제에 들어갔다.

모두 1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2000㎡부지에서 10,000여㎡규모로 확장하여 조성된 신축 공장은 기존의 생산라인 및 부대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부설 연구소의 최신 GLP 분석기기 구입 등 연구시설 확충, 곤충사육실 및 세미나 시설 확장 등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생산에 있어 보다 좋은 여건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개발 생산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Y